東亞日報

發行人 印刷人 編輯人

發行所 漢城府大平通 東亞日報社

五政黨會談은 十四日에 再開

五政黨會談은 十四日午後四時부터 市內某處에서 再開되었다 한다

左翼側의 偏見과 固執
統一爲해 淸算이 緊急

臨政宣傳部要人談

五政黨代表會同은 其後아무러한 進展없이 臨政側의 誠意도 容納되지못한채 自己主張의 固執으로 因한 無益한 感情對立으로 時日만 보내고잇는것갓다 中國의 國共妥協成立이라는 報道도 우리는 他山之石으로만 볼것이아니다 民族의 解放大業建設을 爲하야 左翼側의 小兒病的 偏見을 勇敢하게 淸算하고 國內統一戰線을 結成하야 닥처오는 美蘇共同委員會에 우리全民族의 總結束을 表示하여야 하지안을가 이것이 當面한 우리의 緊急課題인 同時에 無條件要請일 줄안다 臨政側 某要人은 다음과가치 말하였다

共產黨側의 너무自己主張만 固執하는것이 問題이다 그러나 神聖하여야할 朝共을 爲하야 나는 付託한다 三千萬民族이 臨政을 絕對支持하는 同時에 託治反對는 全民族의 總意이다 이 嚴然한 事實을 故意로 不問에 付하고 도리혀 託治支持를 主張하야 民衆을 反感케하고 臨政의 誠心誠意로 勸告하는 國內團結에 不應하고 까지 自己固執을 하면 이는 自滅行動이다 卽至今 有利한 條件으로 合作할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너무 固執이 지나치면 民衆으로부터 離脫하야 氣盡한 데 脈盡한後에 自進合作을 要求하게 될것이다 그때에는 不利한 條件으로 參加하는 수밖에 없을것은 賢明한 共產黨으로서 모를理가 없는데 이무슨 固執인지 알수없는 노릇이다

美蘇會談으로 組織되는 새臨政엔 參與안는다
臨政外務部長趙素昂氏談

臨政外務部長 趙素昂氏는 十三日 美蘇共同委員會에 對한 臨政의 態度를 다음과같이 言明하였다

萬一에 美蘇共同會議로서 託治에 對하야 그 政府組織이 될때에는 臨政은 民間團體를 網羅하여 이에 參與치 안키로 希望하며 또 努力하겠다 託治政府에 對하야 臨政이나 韓人은 參加아니한다 우리는 우리自身이 自動的으로 過渡政權을 樹立하기 爲하야 非常政治會議를 召集할것이며 이것으로서 建立된 新政府는 一年以內로 憲法을 制定하며 正式國民大會를 召集하야 正式政權을 樹立하겠다

原子彈基礎發明者 옷토하운氏拘禁中

【華府十二日發共立】 옷토하운氏는 原子爆彈의 基礎를 세운 獨逸의 科學者이며 노ー벨賞의 授賞者이었는데 昨春獨逸에서 聯合軍에게 逮捕된以來 英國에 拘禁되여있다고 發表되였다

國際聯合總長에 아이젠하워大將有力視

【倫敦十三日發合同】 英國新聞界는 今般國際聯合事務總長의 選任에 對하야 여러가지 議論을 揭載하고있는데 지난十二日 『데일리·헤랄드』紙는 國際聯合事務總長에 『아이젠하워』大將의 就任이 가장 適任이라는 評論을 揭載하고 同大將의 優秀한 外交手腕은 難問題解決에 成功할것이라고 報道하였다

日本飛行場을 耕地化

【東京十二日發合同】 美第八軍司令官代理 『길스·홀』 中將은 十二日 占領軍이 必要로하지않는 日本의 全飛行場은 可及的速히 日本側에 返還하야 耕地化하겠다는 軍令을 發하였다

朝鮮獨立에 全軍援助
美陸軍長官記者團會見에서 強調

지난十二日下午三時에 日本東京을거처서 空路로 漢城에 드러온 美陸軍長官 패터슨氏는 十四日午前十時半에 軍政廳出入記者團과 會見하고 如左한 談話를 發表하였다

今朝에 諸位와 會見할 機會를 가진것을 欣快히 아는바이다 余는 漢城에온後에 몇가지의 要項을 노ー트한바있어 此를 發表한後 여러분의 質問에 應하겠다

▲지난二日間을 美國駐屯軍과가티 經過하였다 二十四軍團에 屬한 美將兵은 레이테 沖繩島方面에서 赫赫한 武勳을 세운 將兵들인데 朝鮮에서는 亦是 戰爭에뿐아니고 또하나는 七師團一部隊는 沃川地에 屬하는 全氏는 多方面에서 問題를 잘處理하며 스캘리포니아州에서온 아ー놀드少將은 步兵에 專門인데 資源道內二萬千이라는 人口를 包括하고있는 安에 軍政을 施設하는데에 當面한 모든問題를 圓滿히 解決하였고 秩序에 擾動이 있섯는데 此 있는 恢復을 結果지엇다 이것이 軍政의 事業으로서 지나간동안에 남긴 두가지의 實例이다 將兵으로서도 良好하엿고 良好한 美國人으로서 處하고있다 到處에서 自己經濟를 만드는데에 才能을 가젓다 一方 赤十字社에서는 美將兵이 가는곳마다 娛樂機關을 建立하야 軍人을 도아주고있다 赤十字社에서 提供하는外에도 必要한바는 더 提供할 計劃이다

▲十萬이 넘는 日本의 陸海軍을 武裝解除하엿는데 不祥事없이 完了하야 日本으로 歸國케하엿고 四十七萬의 日人居住民도 歸國시켯다 그리고 百卌萬의 朝鮮人을 日本其他에서 還國시켯다 如斯히 入國과 歸國에 動員된 數는 三百萬人인데 一日平均 一萬五千을 取扱하엿다 保安方面에 있어서도 四個月間에 百萬名에게 豫防注射를 하엿고 日本人이 남겨노은 軍需品을 朝鮮人에게 引渡시켯스며 南朝鮮에있는 石炭鑛 五個所를 運轉토록 하엿다 六百哩의 道路의 修理도 끗마첫다 其外에 敎育方面에 있어서도 日本人은 全部 逐出하엿고 日本精神을 너흔 科目은 採殺하엿고 朝鮮精神을 너허줄 科目을 還元시켯다 學務努力에 있어서도 百六十萬의 新學徒努力과

問 日本을 觀察한 印象은

答 日本의 武裝解除와 兵器를 없애서 다시

問 美國軍人은 官養成所를 新設하였다 歸心이 如矢하나 그러나 美軍의 還國에 있어서는 目前 日本서 말한外에 더 添加할것은 없다

問 長官의 來京과 美蘇會談과의 關係는

答 何等關係없다

問 朝鮮人에게 戰爭을 하게 한것이다 美蘇會談後에는 美軍이 얼마나 남어잇겟는가

答 그數字는 確答할수없다

問 朝鮮의 獨立이

答 確實하여질때까지 美國의 援助를 바들것이다

(寫眞은 記者團會見의 페長官과 써인)

社說
美蘇共同委員會에 寄함

一

美蘇共同委員會가 不日中에 京城에서 開催하기로 決定되엿다 莫府 三外相會議의 決議에 基하야 美蘇兩駐屯軍代表가 各各 其本國政府訓令에 依하야 朝鮮의 信託統治에 關한 具體的 事務處理가 討議될것이 豫測되기 때문에 代表者間에 分割占領이 招來하고잇는 矛盾과 支碍를 除去하게되는 統一的 措置가 形成될것이라는 期待를 가지니와 우리의 政治的動向과 兩軍代表가 各各 其占領地에서 觀察한 우리의 實態를 如實히 反映시킴으로 새로운 提議가 잇게될는지 몰으리라는 希望에서 우리와 關心을 集中되고잇다

二

美蘇兩國은 信에 依하면 美蘇兩軍代表者間에서 會合席上에 提出할 朝鮮統一에 關한 廣汎한 計畫을 蘇聯側에서 受理할것으로 期待하고잇다 爲하야 三八線의 障壁撤廢와 行政機構의 統一案이 提出될것을 美國務省은 發表하엿다 兩軍代表間의 折衝은 未嘗不 美國側이 發表한 如上의 技術的 協定에 잇을것으로 曲折은 其間의 若干한 差離로 大體로 圓滿한 妥結이 잇을것으로 推測되는바일로써 不自然한 境界線으로 因한 產業交通通信等의 社會가 再開될것이라는 것만으로도 兩代表에게 우리는 感謝하야마지안는다

三

그러나 以上의 感謝는 信託統治側를 首肯함에 잇음이아니다 우리念願은 어데까지나 完全自主獨立에 잇는것이다 託治의 意義를 如何히 解釋하든지간에 託治가 우리에게 民族的 侮辱이라는 點에 異議가 있슬이 없을 것이다 將來할 幸福을 爲하야 託治를 甘受한다는 一部의 曲解가 잇다고하야 民族的 侮辱이라는 自然的 自尊心을 否認치 못하리라는것은 작은일이다 이 委員會의 討議가 어느限界에 미칠것인지 모르나 託治說以來의 民族意思를 兩國委員諸賢은 眞率히 觀察하엿을것으로 미드며 그리고 그 眞率한 觀察에 依하야 朝鮮에 信託統治가 不必要할것이라는 結論을 結論하야주기를 懇望하는바이다

土臺는 朝鮮의 獨自性
小兒病的發熱로는 推進이 無望

本報主幹 薛義植

(5)

共產主義란 都大體 무엇이냐? 的字性字의 羅列에 싸인 難澁한 用語를 羅列할것없이 쉬운말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을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搾取하는 不公平한 階級의 存在를 否定하자 富益富, 貧益貧의 不合理를 根絕하야 機會均等의 原則을 樹立하자 勞作(勞作)하여야 산다(生活)는 公理下에서 萬民皆勞의 大義로써 不勞資本과 有閑地主를 否認하자 이리하야 究竟은 全般的으로 一切의 私有觀念을 淸掃하자는것이 共產主義의 中心思想일것이다 이것은 人類的良心으로서 發露된 人類的理念이며 世界的規模로 推進되는 世界的傾向이다 이같은 否定할 尊貴한 理想을 누가 否認할것이며 이같은 巨大한 潮流를 누가 拒否할것인가? 이것을 具現시킴에 어떠한 方法이 要請되는가? 이理念과 理想을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乃至 文化的으로 表現시킴에 어떠한 手段이 妥當한가? 여기에 獨裁의 愆을 避하는 民主主義的 方式이 잇다 民主主義의 弊를 避하는 民主主義的 秩序가 잇다 民意에 依한 民意를 爲한 民主의 經國大道가 잇다 이 또한 人類的理念이며 世界的傾向이다 共產主義를 가장 充實하게 信奉하고 實踐한다고하는 朝鮮共產黨 諸公의 考慮하였든가? 이點 여기에 着眼하였든가?

첫출바에는 諸公의 意圖하는 理想의 實現舞臺는 決코 蘇聯도 아니고 美國도 아니며 北米洲도 아니고 南洋諸島도 아닐것이다 文字그대로 『朝鮮』일것이다 지내온 自別한 時間을 가진 朝鮮, 自別한 空間을 가진 朝鮮 이 自別한 時間과 自別한 空間으로 비저진 獨特한 文化를 가진 朝鮮일것이다 朝鮮을 土臺로하는 建築일진대 이 朝鮮의 獨自性을 否認하고 沒却하는 建築은 그自體가 아무리 雄壯해도 究竟은 沙上의 樓閣이오 아무리 華美해도 畢竟 洋上의 蜃氣樓에 지나지못하고 말것이다 借問커니와 諸公이 여기에 着眼하였든가? 考慮하였든가? 組合이 아니라 運命을 가치하는 커다란 共同社會인 獨自的 朝鮮을 認識하였든가? 吟味하였는가? 出發當初부터 그時期에 잇서서, 그意圖에 잇서서, 構成과 組織, 手段과 方法에 잇서서 許多한 過誤를 犯한 『建準』以來로 節操없는 人民共和國의 創建을 지나, 最近의 反反託運動의 展開까지 諸公의 意圖는 果然 무엇인지? 筆者 昏暗하야 얼른 判定할수가 없엇다 그를 뜻는 情熱, 그 꾸준한 努力, 諸公이 가진 그 潑剌한 覇氣와 不屈의 猛勇에는 筆者 衷心으로 敬服하야 말지않는 바이다 그러나 結果에 잇서서 朝鮮의 所得이 무엇이며 일것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칠때 筆者는 失望하엿다 『共產主義』를 爲하야 『朝鮮』을 爲하야 失望치 않을수 없엇다

形式論理의 辨證法的世界는 所產이 아니다 數學的公式에 依한 計算의 集積이 아니다 朝鮮의 理想實現은 小兒病的 發熱로 推進될것이 아니며, 設計로 飛躍될것이 아니다 『루바시카』를 입지않고 『두루마기』를 입고라도 共產의 信奉은 저절로 可能하며 『스타ー린』元帥의 寫眞이 아니라 檀君의 影을 奉拜하면서라도 共產의 實現은 도리혀 無難하리라할것이다 진실로 大衆이 賢明타할진대 筆者는 이를 미더 疑心치않는다 (계속)

臨政의 非常政治會議로 統一된 新政權樹立
金性洙氏와 記者團初會見談

韓民黨首席總務

지난七日韓國民主黨의 中央執行委員會及總務會에서 首席總務로 被選된 金性洙氏는 十四日午後一時에 記者團과 첫會見을 하고 內外情勢가 美蘇會談을 압두고 緊急한 此際에 同黨으로서 압흐로 나어갈態度를 表明하엿는데 그要旨는 다음과 갓다

元來敎育界에 從事하엿섯고 政界에는 資格도 없는 사람이 黨員의 要望으로 자리에 나오게 되엿으며 아즉黨務의 連絡도 끗마치지못하엿스나 몃가지 所信을 말하겟다 當面한問題中 託治問題는 우리가 託治를 밧게된다면 朝鮮의 完全한 自主獨立을 達成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從前本黨의 方針인 反託一路로 邁進하겟다 國內統一問題에 잇서서는 가장 緊急히 要請되는 바임은 勿論이며 統一이 일즉 達成되여 統合되엿다면 託治問題도 우리 압헤 오지안핫슬것이다 統一에 잇어서는 各黨各派가 自我의 固執을 버리고 小異를 淸算하야 大同으로 一致團結함에 잇고 이의 方法에는 여러가지 意見이 만켓으나 臨時政府에서 指示한바의 非常政治會議를 召集하야 統一을 斷行하도록 하는것이 조흘줄안다 非常政治會議가 召集되면 여기에서 우리의 自力으로 臨時政府를 樹立하는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하ー지 將軍도 朝鮮人의 意思로 하겟다고 言明한바잇엇으며 우리는 맛당이 우리힘으로 우리意思로 非常政治會議를 召集해서 統一된 臨時政府樹立에 努力하지 안흐면 아니될것이다

(寫眞은 金性洙氏)

횡설수설

▼暴騰! 百物이 暴騰인데 新聞만은 落價! 大落價이다 ▼鍾路네거리 鍾閣머리 구리개압 電車停車場 等等 사람이 모이는 集散이 頻繁한곳에는 各色各種의 著名한 新聞이 팔리고 잇지안혼가? ▼宜乎 一頁이 잇슬줄안다 그러나 불림없는 落名 落價다 ▼新聞은 塗壁紙로 마련된게 아니기 때문에 新聞紙面의 大小를 評價함이 아니다 ▼週報 日報 新聞 서울에서 만든 十數種을 세일수있는 新聞一色의 朝鮮인것도 事實이다 ▼하룻밤을 지나고나면 民衆의 손과 눈과 귀는 온전히 新聞으로 가게된다 ▼今日發行된 各紙가 各說不同하며 或赤或白 問題를 異解하며 似赤非白하야 指鹿謂馬로 民衆의 觀聽을 眩惑케하고있다 ▼緊急한 朝鮮의 統一은 思想統一로 統一에서ー라고할 今日 종잡을수 없는 新聞이 落名 落價가 아니고 무엇인가?

一日一詩

○ 海駝―守門將―하
揭揚되는 國旗―太極旗―미레
난생처음 海駝가 못는다
○ 雙의 海駝·
벙어러 너를보니 내사룸이 새로왜라
속앳말 다못하니 네어내오 다줌소냐
두어라 님오신날 구비구비 맑으리라
(古·失名)

◇投稿歡迎…人心一首

ClibPDF - www.fastio.com

反託熱去益高潮

高麗의三八以北에서도健鬪

「카이로」선언을 직시실행하야 우리에게 자주독립을주오, 신탁통치란 모욕의굴레는 다시쓸수가없다는 반항하는 소리와 그열은 날이갈스록 더욱 노파저서 남부조선과 三八이북의 소련군이 점령하고있는 서북조선에서 도지하적으로 갈수록 그운동이 심하여가고잇다 혹이 일부에서 변명하는것과가치 『후견』이니 『원조』니간에 어쨋든 남의손의 통치는 또다시 밧지안켓다는 민중의가장 양심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에서 부르지는소리다 표면에들어난 운동의 一면을 소개하면 다음과갈다

二萬名捺印誓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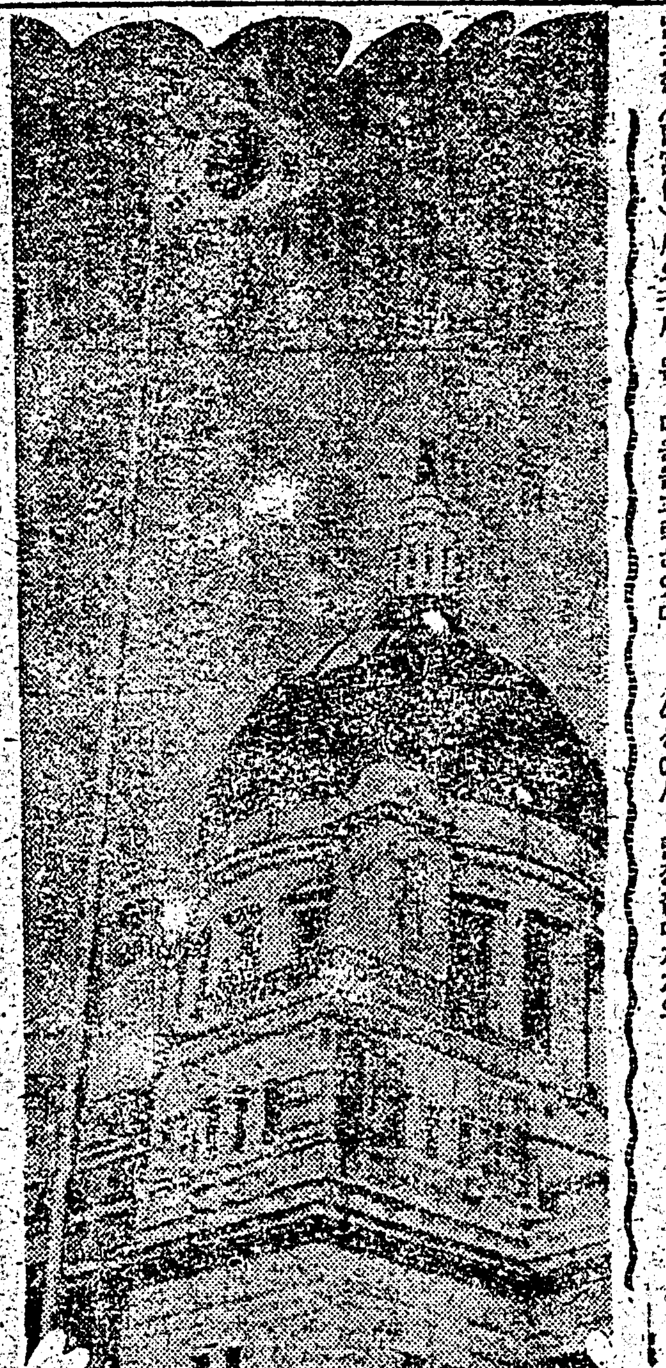
臨時政府奉戴、託治絶對反對

扶餘郡民代表臨政訪問, 書類提出

백제의고도(古都)부여랑의부三만국민들도병금선적으로 조개되고잇는탁치반대운동에 발마추어 씩씩한탁치배격운동을이르키고잇는데 十四일에는 남궁협(南宮協)씨외五氏가 전군민을대표하야입경 임시정부를봉대하고 二만여세대주가 서명날인한 "탁치반대, 림시정부절대지지"의 서약서를수교하여 부여군민의 무서가치구든 마음을피력하엿다 (사진은 서명날인한 서약서)

反託과臨政支持

十일양평(楊平)에서는 양평군부인회를 결성하야 동회석상에서 림정절대지지와 신탁절대반대를 결의하고 그외에도 천재민구원사업과 계몽에동사업을 계획하엿다



首謀十六名拘束

咸興保安隊의不法

함흥(咸興)으로부터 三八장벽의어려운험로를 돌파하야 十四일아침 서울에드러온 모씨는 탁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경기도지부(託治反對總動員委會京畿道支部)를방문하고 다음가치 함남지방의 반탁운동을 전하엿다 이하는 모씨의보고내용이다

함흥에서도 신탁반대의 운동은 열열합니다 말하고십허도 말할곳없고 호소할곳조차없어 서울신탁반대중앙총동원위원회에나 이사실을전하고저 올러왓읍니다 지난一일아침 함흥시 주길정함흥중앙기독교회(咸興中央基督敎會)에서일어난 기독교도들의 반탁대회가제일큰사건이엿읍니다 당일동대회를 중지시키려고출동된「보안대원」들과의사이에 충돌사건까지발생하엿는데 이로인하여 동회수석 목사이동현(李東鉉)씨외十五명이반탁운동선동자라하여 방금강제구금을 당하고있고 이로인하여 기독교도들의분노는 날로노퍼가고있읍니다 하여간 함흥시민은 모진탄압에도굴하지안코 싸우고있다는것을 三八이남동포에게멀리알리고십습니다

物資密輸出嚴禁

違反者는嚴重處罰

法令卅三號 昨午부터發動

十二일상오령시부터 군정장관이나 또는 동장관이 지정한 대리인의 인가를 받지안니한 사람은 군정청 법령 제三十三호에 의하야 어떠한 종류의 재산을 물론하고 조선으로부터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부터 조선으로 공(空)륙해로수송할수업다 인가를바든 사람이라도 반다시 수송면허장을 가저야할것인데 만일 법령을 위반하고 불법수출입하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그재산은몰수하고 군정재판에회부하야 처벌하게되는 만큼 주의하기를 바라고잇다

養虎團長金星先氏

조선의자주독립을위하야 분투하여온양호단(養虎團) 단장 김성선(金星先)씨는 신병으로요양중十二일시내관수정二十八번지여사에서별세하엿는데향년五十四세 발인은十五일상오十一시다

二週後면責任지고調達

그동안은各町民이醵出均配하라

緊迫한食糧과軍長官의言明

우리백二十만서울시민의식량을어떠케하면해결할수잇슬까―나날히핍박해가는식량사정을해결코저 서울시청에서는十三일서울시장과 군정관의일홈으로포고를발표하야 애국심에호소하는 최후의단(斷)을내리엇는데十四일상오十시또다시三백의 서울시내각정회회장을 시청에초청하야당면한시민의식량대책협의회를열엇다 이석상에서서울시군정관웽킨손중좌로부터 『두주일뒤면 식량의책임을지겟스니 압흐로두주일동안의 비상조치로서 각정회에서는 각정회의 책임아래 자기정회에서 八十석내지八十五석의쌀을 경민으로부터 거출케하야 전정민에게 균배하는데 八十석내지 八十五석의쌀은 과거정민중에서 한사람하로三홉 계산으로하야 다음추수까지에먹고 남을쌀을 강제적으로 내여놋도록하는것이다 그리하야 경관의원조가필요할때에는 경관을동원하도록하엿다 시키고전책임은 군정관이지겟다」는강격적인해결책을발표하고 각정회장을독려하엿는데 두주일뒤에는식량을배급하게 될지도몰름으로각정회에서는 배급표를준비하도록하엿다

奸商의隱匿米强放

謀利의生必營團도改編하라

별항과같은웽킨손군정관의 해결안이제의되자 따로히 강창화(姜昌和)씨를위시장으로추대하고 군정관의해결안은수응할수업다는결의와 건의를결정하얏다 즉 현재서울시내에는 쌀이절허없는형편이므로 각정에 할당된八十석의 쌀거출안은수응할수없으며 식량의 해결책으로서는 최고三十八원으로유지하여 통제경제또는제한경제를 더욱강화보강할것등이다 그리고 록히다음의 의견은주목을 끌엇다

농민에게는 쌀이없고 쌀이잇는것은 간상배이모로 군정당국에서는 강력한법규를 정하야 간상배의쌀을 시장에 풀도록할것과종래의 식량영단인 생활필수품영단은 식량해결에 무책임일뿐아니라 혀방전 공정가로 입수또는 그후싼갑으로 접수한 쌀 콩 밀가루등 식량을 식량이 핍박한 이판에 고가로입잡을 시켜 모리배에 넘겁은부당랍으로, 동영단을 시청산하로너어 민중의 요구에따라 운용할수잇는 기관이되도록 기구를개편 할것등이다

國立圖書館은 月末부터無休

그동안 도서정리로 말미아마공휴일(公休日)에는 개관치못하든 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에서는 一월말경 부터는 공휴일에도 개관하야 일반의 도서열람에 편의를 돕기로되엿다

西大門町大火

損害二百萬圓

十三일 하오 영시반경 시내 서대문정 一정목 一一九 미곡상 덕수상점(德壽商店)에서 발화 四동을 전소하고 동二시에 진화되엿는데 손해는 약二백만원 정도이고 원인은 방금 조사중이다

國防警備隊新設

心身健全者募集

군정청국방국에서는 이번에조선인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를 모집하여훈련시키다을 중요임무를 맛기기로되엿다 이경비대는 시내냉천정(冷泉町)三一번지 전신학교에서 十四일오전 十시부터 령二십一세 이상三십세까지의 건강한 군인정신 청년을 십급나서 특별훈련을 실시하며 만흔응모자가 잇기를바라고잇다 제一차로 장교六명과 대원二백二십五명을양성하리라한다

司法으로韓美親善

美陸相에朝鮮辯護士位記贈呈

이번입경한미국육군장관「패터슨」씨에게대하야「조선변호사」라는자격을 부여하기로되여 그선서식이 十四일오전 八시반 대법원대회의실에서거행되엿다 여기에는「하ー지」중장「아놀드」소장「러ー취」군정장관의임석과 三법원검사국판검사 전원이참석한가운데에 새조선의변호사자격증을부여하엿는데 이석상에서『패터슨』씨는 다음가치말하엿다 오늘 우리미국사법부보다 오랜역사를가지고잇는귀국의 변호자격을갓게됨은 내일개인의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아메리카』합중국의 명예이다 나는이를 계기로 귀국과 『아메리카』의사법부가 가일층 친선케될것으로 밋는바이다

휴지통

농가에서는 쌀이 전재산, 그 생활비도 모두 몃 안는 나탈가마니속에서▲ 정치가도 애국자도 종교가도 교육자도 도라가면 한개의 시민생활▲쌀장사도 먹어야 살고 쌀애국자도 먹어야 살고 이농촌에는 산령이가 대도시에는 윤반이되어야 먹을수잇고▲석냥이 담배니하는 일용품갑시 날로 올르고 도시에서는 권종수류탄이 횡행하고 손에는 모략분자가 드나들고▲이러케되고보니 일상생활의경제로선과 국실자비심의로선이 부득이여행할수박게▲애국심과 자비심만으로 모든것이 해결된다면온세계에정치도 경제정책도 업서지는날▲ 식량대책에애국심과 자비심의호소만으로는 또실패

新春에새感激! ──直進하자獨立의길로──

景福宮에大極旗

昨日盛大히揭揚式擧行

경복궁(景福宮)옛궁에 태극기가 나부낀다 이벗해만인고! 힌눈이 장안을은세계로단장한 十四일상오十시 군정청백아관압뜰바른편에 태극기는 힘잇게 올라 대공에번득이엇다 군정청압헤태극기 휘날린다는 반가운소식에 오직자주독립만을바라는감격인다 수한시민이모힌가운데 『페터ー슨』육군장관 하ー지중장 아ー놀드소장 러ー취장관등 여러장성을마저 『쉬ー쓰』민정장관의축사가 잇슨다음 경찰학교생도들에 의하야미군의 유량한주악에마처 내외인사의협찬 박수한호리에 국기는창공에 기운조케 올랏다 이어 이훈구(李勳求)박사의 선창으로 조선독립만세 연합군만세 군중은곳곳내 자주독립만을부르지젓다 이태극기야 말로 국권과 국토를 빼앗긴이겨레에 새회망과해방을 축복하는것이다

◇사진은우리국기태극기를경례하는미군장성들

世界赤十字의先驅! 燦然이빗나는朝鮮民族救恤文化의聖典!

申鼎言著 (近日發賣)

救恤國史

只今印刷中 定價五十圓

一、朝鮮의特殊災亂
二、朝鮮의災亂槪狀
三、朝鮮의救恤善政
四、朝鮮의救恤機關
五、朝鮮의救恤文化

發行所 서울市黃金町一丁目一六八 啓蒙俱樂部出版部
發賣所 서울市 朝鮮救恤同盟本部 全鮮分會及支部

新聞分傳員募集
新聞分傳員若干名을募集하오니 希望하시는분은本人來談하시오
漢城市光化門街一三九 東亞日報社內
東亞日報市內販賣所

光復2年 十五日부터
首都劇場
李春風 脚色·演出
歌劇 椿姬 十景
金貞桓裝置·任澄照明
朝鮮樂劇團

生産이다 建國이다
우리는技術로世界에자랑하고 우리의힘을그舖에게表示하자
(洋靴木型製作)
榮光社
서울市中區長谷川町一一九 (子屋北向越便)

本社廣告部
漢城市光化門通一三九
電話光(3) 自二四二一 至二四二六番
直通 光二二一二番

今日開業
西洋料理 朝鮮料理 高級社交場
錦香亭
서울市南大門通五丁目十四의四號
電話本局四〇〇九番

寶敎製造部이불
서울毛皮店
이불製造部
서울市本町四丁目十番地 電話本局一六〇一番